

베트남 증시 수익률 글로벌 1위 “추가상승 여력… 중장기적 매력”

한달간 VN30 수익률 14.7% 달성
“검증 필요하지만 9~10월 승격 유력
FTSE편입 확정되면 추가상승”

‘반 토막 증시’ ‘쪽박 시장’의 대명사였던 베트남 증시가 ‘제3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 8월 베트남 VN30의 수익률이 15%에 달하면서 글로벌 증시 중 1위에 올랐다. 개별 종목도 수익률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

베트남 증시 성적이 급반전하자 ‘지금 들어가도 될까’ 고민하는 투자자도 나오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기대를 가져도 좋지만, 국내보다 사정을 잘 알기 어려운 만큼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3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VN30 지수는 8월 한 달 동안 14.7% 상승해 글로벌 주요 증시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VN30은 호치민증권거래소 상위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대표 벤치마크로, SSI증권·사이공하노이은행·빈홈즈·비엠통은행 등이 포함된다. 최근 랠리도 금융·부동산주 중심이었다.

승격 기대를 키운 것은 제도 개선이다. 그간 FTSE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승격이 좌절됐지만, 올해 봄 한국거래소 차세대 증권시스템(KRX NEXT)을 도입하며 결제 주기 단축, 외국인 계좌 개설 간소화 등 조건을 대부분 갖췄



ChatGPT로 생성한 ‘베트남 증시 상승에 환호하는 투자자들과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들’.

다. 김근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제도 요건은 충족됐으나 안정적 정착 여부를 FTSE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9~10월 승격이 유력하지만 100% 확정으로 보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투자자의 관심은 ‘지금 베트남 증시에 올라타도 되는지’ 여부다.

국내 증권가는 베트남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 평가한다. 베트남 증시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2배 수준으로 최근 10년 평균을 밑돈다.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은 7.52% 증가했고, 2분기 상장기업 순이익은 전년 대비 30% 늘었다. 김근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한국처럼 펀더멘털과 주가의 괴리가 큰 시장과 달리, 베트남은 경제 성장률과 기업 이익이 증시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며 “최근

급등으로 단기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평가 매력이 살아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 급등세는 부담이다. 연초 1200~1300선 박스권을 오가던 VN30은 최근 1800선을 넘어섰다. 김 연구원은 “박스권 상단에 있어 위험 구간에 진입했다”며 “승격이 무산되면 낙폭이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FTSE 편입이 확정되면 패시브 자금이 대거 유입돼 외국인 비중이 늘고 추가 상승 여력도 커질 전망이 있기에 상승 여력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예측했다.

시장 사정이 어둡다면 간접 투자가 효율적이다. 현지 계좌 개설에는 증권거래코드(STC) 발급 등 절차가 필요해 접근성이 낮기 때문이다.

/허정윤 기자 zekova@metroseoul.co.kr

“자금 증시 이동… 中 투자적기 돌아온다”

미래에셋운용, 中 증시 전략 세미나
“AI산업 확산 등 빅테크 저평가 해소
전기차·바이오테크 등 세계 선도”

현재 중국 경제가 막대한 유동성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부상 덕에 10년 만에 찾아오는 투자 적기 기회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래에셋운용은 3일 ‘지금 중국에 투자해야 하는가?…TIGER ETF가 소개하는 중국 증시 투자 전략’ 웹 세미나를 열고 “중국 본토의 올해 1~7월 누적 신규 증권 계좌가 1456만개로 전년 동기보다 37% 증가해 대규모 자금 유입의 신호로 해석된다”며 이처럼 밝혔다.

미래에셋운용의 정의현ETF운용본

부장은 “중국 가계의 저축액은 160조위안(3경원)으로 안전자산 기대수익률 하락 때문에 투자자금이 증시로 이동하고 있다”며 “가계 예금 대비 증시 시가총액 비율이 2014·2024년 저점이 형성된 상황으로, 상하이종합지수가 반등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AI 산업 확산과 자금을 상승으로 중국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의 저평가가 해소되고 증시가 재평가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 중국은 전기차, 휴머노이드 로봇(인간형 로봇), 바이오테크 등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중국의 대표 전기차 업

체 BYD의 올해 예상 판매량이 미국 테슬라의 3배에 달하고 배터리, 반도체 등 자체 기술 면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휴머노이드 로봇은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돼 안정적 부품 공급망과 낮은 생산 비용 덕에 약진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바이오테크도 규제나 임상 환경이 선진국보다 여유로운 데다 임상 비용이 저렴하고 임상 시간이 짧다는 것이 강점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중국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17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 상장된 차이나 ETF 중 개인 순매수 점유율이 90%에 달한다고 정 본부장은 전했다.

/허정윤 기자

‘인버스 2X 천연가스 선물 ETN B’ 상장

KB증권, 뉴욕거래소 상장 예정

최근 천연가스 시장이 계절별 수급 변화, 국제 유가 변동, 기상 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요인으로 단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자 KB증권은 단기 하락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인버스

상품을 내놓았다.

KB증권이 4일 뉴욕상품거래소(NYMEX) 상장 천연가스 선물에 투자하는 ‘KB 인버스 2X 천연가스 선물 ETN B’를 신규 상장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KB 인버스 2X 천연가스 선물 ETN B’는 미국 NYMEX에 상장된 천

연가스 선물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구조로, 기초 지수는 ‘Bloomberg Natural Gas Single 2X Inverse TR’이다. 해당 상품은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면 손실이 2배로 확대되는 고위험, 고변동성 구조를 가진다. 또한, 천연가스 선물의 성과뿐만 아니라 달러 환율 변동도 상품 성과에 연동되는 환노출형 상품이다. /신하은 기자

박현주, 미래에셋 해외비즈니스 책무 맡아

〈창업주 겸 GSO〉

상반기 해외법인 세전이익 2238억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그룹 창업주 겸 글로벌전략가(GSO)인 박현주 회장(사진)이 회사 책무구조도에 이름을 올렸다고 3일 공식했다.

박 회장은 글로벌 비즈니스 중장기 방향성 수립 및 글로벌 사업 기회 발굴에 대한 책임을 맡을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전체 고객운용자산(AUM)이 최근 1000조원을 넘어섰으며, 이중 해외법인이 운용하는 고객 자산이 272조원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한다.

미래에셋의 각 계열사는 독립적인 전문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박현주 GSO는 해외 사업 전략 수립 자문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런 가운데 올해 상반기 해외법인 세전이익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면서 글로벌 사업이 본격 성

장단계에 들어섰고, 이에 박현주 GSO를 책무 구조도에 올림으로써 그의 글로벌 투자 해안을 중장기 전략 방향성 차원으로 구체화한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배경이라고 미래에셋증권은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비즈니스 전략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선택으로 내부적으로 필요한 책무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판단”이라면서 “클라이언트 퍼스트’(고객 중심) 정신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글로벌 투자전문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10대그룹 절반 밸류업 공시… 주가 31% ↑

한국거래소, 8월 기업가치 제고 현황
영원무역·HS애드 등 4곳 신규공시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의 절반 가량이 밸류업 공시를 마친 가운데, 공시를 제출한 기업들의 주가는 평균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가 3일 공개한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8월)’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GS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함에 따라 모든 10대 그룹이 공시를 제출했다. 10대 그룹 상장사 115개사 중 49곳이 공시 참여했으며, 이는 10대 그룹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이 넘는 51.2% 수준이다.

GS뿐만 아니라 8월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신규 공시한 기업은 영원무역, HS애드, 영원무역홀딩스 등 4개사다. 지난해 5월 제도 도입 이후 공시

기업은 코스피 상장사 126개사, 코스닥 상장사 36개사 등 총 162개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메리츠금융지주, 현대모비스, DB증권 등 3개사가 주기적 공시를 제출했다. 특히 메리츠금융지주는 분기별로 이행현황을 공시하는 등 총 6회 공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8월 중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기업은 27개사,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기업은 25개사로 상장사들의 주주환원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됐다. HMM(2조1000억원), 메리츠금융지주(5514억원), 네이버(3684억원) 등이다.

주가 흐름도 긍정적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162개사의 주가는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평균 31.4% 상승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3일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대표이사(가운데)가 수원시 광교에 위치한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의 중부센터 개소 기념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 광교에 중부센터 문열어

한국증권금융은 3일 수원시 광교에 위치한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신규 영업점인 중부센터 개소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정각 증권금융 사장은 경기 남부에 소재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부센터를 개소했다 밝히며 중부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번 개소식에는 금융회사(은행, 증권회사 등) 관계자가 참석해 증권금융의 중부센터 개소를 함께했다.

증권금융은 이번 중부센터의 개소를

통해 첨단기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근로자의 자산형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특히, 중부센터를 통해 국가적 중요 산업인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해 증권담보 대출 등을 통한 자금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경기남부 지역에 소재한 기업체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매입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직원들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